

한국 비구니 '정체성' 포괄적 조명

'동아시아의 불교전통...' 국제학술대회 5월 20~22일, 안양 한마음선원서 개최

한국 비구니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의 불교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대회장 혜원)는 한국 비구니 승단의 역사적 의의와 활약상을 집중 조명, 한국 비구니 승단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 자리에 모은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섯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흘간 모두 24편의 논문(표 참조)이 발표된다. 특히 비구니에 대한 시대별 인식 차이와 '팔경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스님의 수행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고려시대 '위상 높았다'

조선시대에 비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훨씬 높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고려시대 비구니의 활동과 전각각사 혜선의 여성성불문'(이화여대 사학과 김영미 교수), '고려 왕실의 여인들과 불교'(서울대 최병현 교수와 '침묵하는 주변적 존재로서의 조선시대 비구니들'(호주 그리피스대 존 조르겐센 교수는)은 이 같은 사회상이 불교계에도 반영됐음을 보여 준다.

김영미 교수는 고려시대 선자들이 여성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권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혜심, 나옹, 보우 등 고려 후기 선자들의 비문에는 비구니 항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선자들의 문헌에서 하인거에 참여한 수행하는 비구니들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은 통일신라와 고려 전기에 비해 선자들의 여성관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김 교수는 "혜심 문하의 비구니들은 수선사 안거에 참여한 후 혜심에게서 화두를 받았고, 나옹은 묘령, 묘연 등에게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의 길을 추구했다고 권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시대에는 여성재가불자들의 활동도 두드러졌는데, 최병현 교수는 의천의 친모인 인예 왕후를 그 예로 들었다. 당시 최고 문벌 집안의 딸이었던 인예 왕후는 친정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의천이 천태종을 창립하는데 큰 힘을 쓴 장본인. 최

교수는 논문에서 천태종 창립을 통한 불교계의 개편과정에서 인예 왕후의 역할을 통해 당시 여성불자의 위상을 살폈다.

조선시대 '침묵하는 주변적 존재'

그러나 유교 사회인 조선시대에 비구니들은 '침묵하는 주변적 존재'로 남아 있었다. 존 조르겐센 교수는 "유교사회에서 불교성직자라는 위치, 가부장적 유교 질서와 여성혐오적이고 남성우월적인 불교의 위계질서 그리고 한문에 대한 소양 부족이 그 세가지 이유"라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비구니의 삶은 매우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남아 비구니들이 주변화되고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팔경법 긍정적 영향 줬다

한편 당후야 세(미국 트루만주립대) 교수는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팔경법'에서 팔경법에 근거한 비구-비구니 승단의 분리는 비구니 승단에 긍정적인 영향도 주었다고 주장했다. 당후야 세 교수는 "이러한 구분은 비구니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며, 비구니 승단 내에서는 결국 팔경법이 무효화되었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비구니들이 자신의 제자에게 비구승의 참여없이 수계를 할 수 있어 비구니 법통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후야 세 교수는 "팔경법에 대한 동아시아 비구니들의 관심을 연구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당시 동아시아 비구니 승가를 태동시킨 제도적 기초를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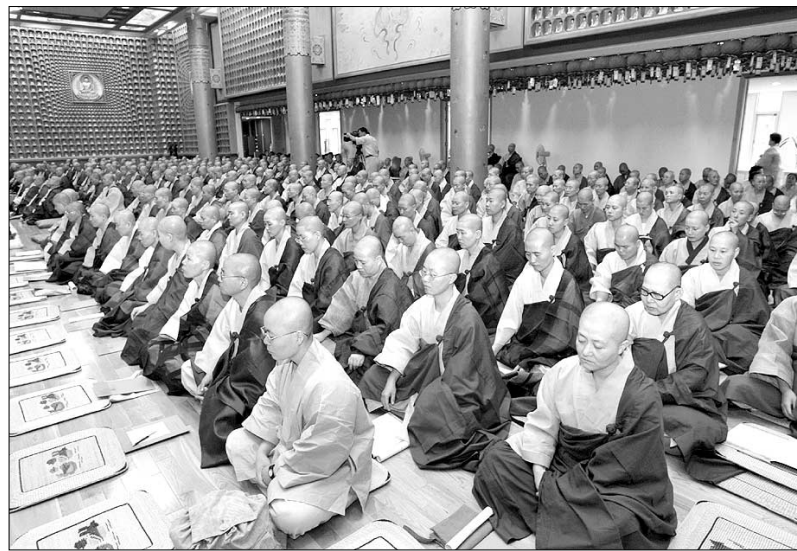
대행 스님 수행관 연구

이번 세미나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발표 주제는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의 수행관이다. '대행 스님의 수행관에 대하여'(혜선 스님)와 '대행 스님의 힘이 없이 한다'(정고 스님) 등은 대행 스님의 수행관과 과학관을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학자들은 중국과 대만 불교사에 나타난 비구니 승단에 대한 논문도 발표해, 중국의 법맥·역사별 비구니의 역할과 대만 불교 비구니 승단의 교육 현황도 엿볼 수 있다.

문의 (031)470-3173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비구니 승단의 위상을 학술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전국비구니회의 행사 장면.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 학술대회 일정

기초강연 바바라 루쉬(콜롬비아대 교수)	마음도 하나, 젠더도 하나 : 불교의 역사에 남은 여성의 발자취	5월 20일
<패널 1> 한국 불교사에서 여성의 역할과 성취		5월 20일
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 최병현(서울대 교수) 김영미(이화여대 교수) 토니노 푸조니(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 존 조르겐센(호주 그리피스대 교수) 혜선 스님(동국대 박사과정)	신라의 비구니 승적 도유나람 고려 왕실의 여인들과 불교 : 인예 왕후와 천태종 설립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비구니의 활동과 전각각사 혜선의 여성성불문 원나라 거주 고려 여인들의 불교 활동에 대하여 침묵하는 주변적 존재로서의 조선시대 비구니들 대행 스님의 수행관에 대하여	
<패널 2> 제도의 변화와 한국 비구니 승가의 실태		5월 21일
혜원 스님(동국대 교수) 포리 박(아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진영(아리조나대 교수) 청고 스님(동국대 대학원)	한국 비구니의 수행 제도와 선원 청구에 대한 고찰 현대 한국 비구니사찰의 실태에 대한 고찰 김일영 : 한국 불교와 근대성의 또 하나의 만남 대행 스님의 힘이 없는 도리	
<패널 3> 동아시아에서 여성 종교 수행의 법맥과 전통		5월 21일
미리엄 레버링(테네시대 교수) 리버야 콘(보스턴대 교수) 당후야 세(트루만주립대 교수) 진화(산리타시 콜롬비아대 교수) 베아트라 그라트(워싱턴대 교수)	중국 불교사의 비구니에 관하여 중국 당나라의 니승들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팔경법 : 중국 비구니 승단을 중심으로 중국 당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두 가지 사례 연구 중국의 명·청·청 말 시대의 임제계 니승들에 대하여	
<패널 4> 창조적 종교 표현과 새로운 가르침의 탄생		5월 22일
이향순(조지아대 교수) 박종래(서울대 교수) 지영(세종대 교수) 준명 유(러트거스대 교수)	한국문학에 나타나는 비구니 모습에 대하여 한마음선원장 : 대행 스님의 과학관 지방보살 신앙과 여성 : 중국 당나라와 조선시대의 경우 불법을 대중에게로 : 대만의 불교 교양 교육에 관한 연구	
<패널 5> 한국 여성 불자의 불교 신앙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5월 22일
캐서린 류(미시간주립대 교수) 마르시 메들브룩스(서울대 대학원) 헨릭 소렌센(코펜하겐 불교학세미나)	여성주의의 '혜심' : 김경한의 '수라도'에 나타나는 비록 부인 대행 스님의 주인공 연구 : 탄생과 사상-창조적 역사 한국 비구니의 이미지 속에 나타나는 이상, 전통 그리고 현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



생명과 禪(3)

우리의 본면목인 생명을 접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은 수행방법들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요즘은 과학자들마저도 불법을 과학과 연결하여 굳이 설명하고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한다. 그저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혼동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염불, 기도, 참선, 명상, 고행 등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생명의 본면목을 알아차리는 가장 실재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면 이 세상이 본래 우리 자신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원래의 우

로 되돌아보기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을 되돌아 볼 때 어차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관점을 떠나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상(俄相)없이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말할 하지만 이는 매우 편편적인 이야기이다. 당연히 금강경에 있듯이 사상(四相)을 포함해서 모든 상이 실제가 없이 허망함을 알면 된다. 하지만 자신을 되돌아 볼 때 아상이 없으면 옳고 맞고도 없는 것이다. 그저 그럴 뿐이다. 내가 서있는 이 자리를 솔직히 인정하고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에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은 매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아 밖을

스스로 자신을 보는게 생명 보는 것 이상 놓으면 두두물물이 그대로 화두

리 모습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상의 삶을 떠나서 그 무엇도 따르 없음을 생명을 향한 자신 마음공부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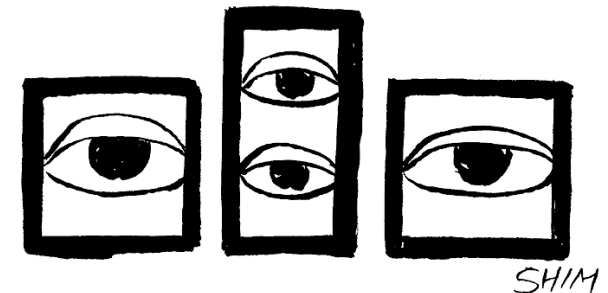
이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눈을 들어 밖을 보라. 이미 타인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그대로 부처요, 진리이기에 굳이 공부하는 이가 그나마 공부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외에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본면목인 생명을 알고자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이다.

즉 마음공부의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요, 자신의 발발을 살피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수행 방법의 뼈대이니 어떤 상황이나 경계에 있어도 밖으로 구하지 말며 스스

랑한 자신의 아상이 점차 녹도록 하는 것이다. 간화선의 공안 공부라는 것도 항상 작용하는 나의 허망한 아상이 저절로 힘을 잃도록 진리와 생명에의 문을 여는 문고리 하나를 걸어 그것을 통해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다.

공부하는 이들은 자신의 수행방법을 통해 오직 행위와 어둠동정 중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곧 깨어있음이고, 그것이 곧 여여(如如)함이니 결코 어떤 특별한 상태나 경계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자신의 아상을 놓아가는 것만이 마음공부에서 가장 요긴하고도 구체적인 방법이고, 이것이야말로 두두물물이 그대로 화두로 무르익게 되는 문교(頓教)의 길이다.

■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권 동신 전통 목공

▶ 사찰문 전문 ◀

대표 백영목합장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번지(직지사 검문소 위)

전화 : (054) 432-1312

공장 : (054) 432-8121

휴대폰 : 011-535-7000

주요 공사사실

직지사, 봉암사, 각화사, 대승사, 해인사(구광루,선원), 출서사, 운필암, 김용사, 범주사, 운문사, 봉녕사, 용문사, 서광사(캐나다), 한마음선원대구지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찾아오시는길

↑ 추동경1.C
동신전통목공
← 직지사
김천시내 ↓ 직지사 검문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2004년도 여름성지대회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에서 念佛잡시다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담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 팔공산 은혜사를 순례하였고 2004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에서 여름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4년 8월 1일 ~ 3일(2박 3일)

◆ 장 소 :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

◆ 접 수 : 전화신청후 은행계좌입금

국민은행 023-21-0667-309 염불만일회
농협 053-02-128104 염불만일회

◆ 동 참 금 : 25만원 - 왕복비행기요금 포함
제주도 법화사 직접통합 - 5만원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문 의 : 02)732-1215~17 / FAX 732-1207

*비행기 티켓에약관계로 5월 31일까지 신청바랍니다.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분 신규회원 가입안내
가입비 2만원/년회비 1만원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20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